

죄 많은 민족, 불법을 짊어진 백성,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
아 대한민국 다시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사1:1-20

요즘 나라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다. 미국 딸이 전화가 왔다.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었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제 처의 말: 트럼프만 믿고 있다. 하나님 말고는 지금 미국과 트럼프 외에는 나라를 구해 줄 데가 없다. 아이러니지만 진실....

건국된 지 10년도 채 못 되어 나라가 망하려는가 보다. 많은 이들 걱정하고 있다.

“형제님, 자매님들~~~

정말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이 6.25 한국동란 때 밀려 밀려 내려가 낙동강 벨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느낌은 부산 부두 낭떠러지 앞에 서있는 느낌입니다.

낙동강벨트까지 밀리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 그리고 피눈물 흘리면 생고생을 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습니까?

더 이상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100%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수많은 반대한민국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불법 불법 불법을 더하여 대통령을 결국에는 구속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주신 자유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일에 국회, 사법부(법원, 헌재, 검찰, 공수처), 경찰 심지어 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이어나처럼 사납고 악랄하게 짓고 찢고 뜯어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고 저 세력을 물리칠 수도 없는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삼상7장, 사무엘 시대 블레셋의 침입,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려고 미스바로 올라간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회개는 먼저 자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 대언자는 150년 후에 있을 자기의 조국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이사야서 1장에 유다 왕국의 패망 전 상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북 주사파 세력에 의해 중국에 의해 장악될지도 모를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동시에 어떻게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지도 보여 줍니다. 오늘 < > 4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살 수 있는 길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의 회개밖에 없음을 설교하려 합니다.

배경

솔로몬 이후 왕국의 분열, 주전 8세기 후반에 여로보암 2세가 사망한 뒤 북 왕국 이스라엘은 파국을 맞이하고 결국 수도 사마리아는 BC 721년 호세아 왕 시대에 아시리아에게 함락당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장기간 통치하고 성경적 신앙이 위축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되었다. 당시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통치함, 주전 726년 등극, 5년 뒤, 이스라엘 멸망, 실제로 이스라엘 멸망 이후 8년 뒤 산헤립의 히스기야 침공

예루살렘과 몇몇 도시를 빼고는 다 함락됨. 풍전등화 같은 상태

1장은 1차적으로 남왕국 유다의 상황이다.

2차적으로 대한민국의 실정에 대입해 보라. 우리는 어떤가?

이사야가 1장에서 보여주는 유다의 상태는 현시대 대한민국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사야의 시대(1)

1.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쇠퇴기

2. 웃시야는 아사라라고 불림, 아마샤의 아들, 52년 통치
좋은 왕이지만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려다가 나병 환자가 됨
3. 요담: 선한 왕, 22년 통치, 이때에 아시리아가 새로운 별로 떠오르기 시작함
4. 아하스, 악한 왕, 거의 아시리아의 속국이 됨, 주의 집(성전) 폐쇄
5. 히스기야: 선한 왕, 42년 통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림
6. 이사야의 대언 시기는 50년이 넘음, 국제적으로 혼동의 시기, 주변 강대국들
7. 그런데 유다의 가장 큰 복병은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백성의 마음,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 강대국 의존

하나님의 고소(2-4): 짐승만도 못하다(시49:20)

2절: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거역한다. 거역한다(Rebel): 반역한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 산 언약(출19-20)을 맺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됨. 불신과 우상숭배로 그 언약을 깬다.

3절: 짐승만도 못하다. 1. 감사가 없다. 2. 당연히 여긴다. 3. 주를 버리고 뒤로 물러간다(4).

4절: 죄 많은 민족, 불법을 짚어진 백성,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 부패시키는 자식들

죄, 불법, 악, 부패, 이것이 넘쳐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통계에 의하면 약 1,800명)이 판사, 검사, 경찰, 군대의 주요 보직, 행정부, 입법부 차지

국민의 무지: 이번 계엄령을 내란이라고 부르는 무식한 자들이 많다.

내란은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것(국헌 문란)이지 정권을 가진 사람이 왜 내란을 일으키는가? 이번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한다면 내란범은 더불어 민주당 중심의 국회와 공수처, 그리고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경찰이다.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고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는 딱풀 위조 공문, 경비단 대장 압박하고 서류까지 위조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 들어갔다.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다. 이 뒤에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 좌파 카르텔 판사들이(아마 다수는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자들) 있었고 지금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 중 다수도 심각한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변론 기일을 정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다.

사법부의 문제: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렸다(21-23)

유다와 대한민국의 상태: 상처 투성이(5-6)

사람의 관점에서는 나라와 백성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온통 상처투성이(5-6) 대언자의 지적에 그 당시 특권층, 제사장, 대언자들은 그를 조롱함. 그러나 그의 지적은 사실이다.

이번 계엄의 원인은 선거 관리 위원회의 부정 선거 의혹에 있다.

21, 22대 총선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 사전 투표율 - 당일 투표율, 민주당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11-13%, 국힘 -11-13%,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민주당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전 투표에서 국힘을 이길 수 있는가?

2024. 4.10 투표, 분석 결과 총 3,551개 행정동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3,405개 행정동에 후보를 냈고 그중 3,344개 행정동에서 사전 투표 득표수가 당일 투표 득표수보다 많았다. 즉 사전 투표가 더불어 민주당에게 유리했던 행정동이 전체 행정동의 98%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제주도에서는 모든 행정동에서 사전 투표가 더불어 민주당에게 100%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번 사전 투표에는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추세와 결과가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나타났다. 그 결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총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되었다. 의원 300명을 뽑는 데 소송 건수가 126건, 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무려 42%

부정선거 자료로 제시된 투표지, 금요일 민경욱 의원 영상으로 보라.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져 마치 일장기처럼 보이는 투표지를 말합니다.

배춧잎 투표지: 두 장의 투표지가 겹쳐 인쇄된 투표지를 지칭합니다.

자석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다른 투표지와 붙은 투표지를 의미합니다.

화살표 투표지: 화살표 모양이 인쇄된 투표지를 말합니다.

신권 투표지: 형상 기억 용지를 사용했다는 변명, 최근에 삭제함

공수처로 출두한 뒤에 공개된 대통령의 육필 편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중국을 뜻한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특권층들은 이런 사실을 음모론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결코 음모론이 아니다.

2020년 5월 4일,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 있어"

[최보식이 만난 사람] (*)

[왜 사전투표 조작설이 나왔을까... 박성현 前 통계학회 회장·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

사전 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서 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17개 선거구 사전투표 득표율 똑같이 63:36 나올 확률 통계적으로는 거의 희박해
전체 유권자는 하나의 모집단... 사전투표·당일투표 그룹 票心 현격하게 차이날 수 없어, 미국 사례(*)

완전히 초토화된 전쟁터, 폐허 상태(7-9)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초토화된다.

아마도 후에 있을 아시리아의 침공(36-37장), 혹은 바빌론 침공, 혹은 재림의 때
이유: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그분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내주심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니 얼마나 놀랐을까?(9, 창18-19).

이 두 도시는 유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

대한민국의 상태도 중국에 의해 점령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경건한 종교인으로 여기고 있다(10-15). 10절, 소돔의 치리자들, 고모라의 백성들
수많은 헌물(11), 주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삼상15:22)과 상한 영(시51:17), 경건하게 사는 것(미
6:6-8)

나라가 망하는데 교회들이 잠잠함.

그 결과 모든 종교 행위가 불법이 됨(13), 주님이 이들의 종교 행위에 피곤하고 지침(14)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손에는 무죄한 피가 있다(15).

오늘날의 우리 교회 사정은 어떤가?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크리스천 이승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 기도를 건국한 나라
국민의 5분이 1이 크리스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자부함(*)

현대 교회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음, 포스트모더니즘 영향, 사람을 즐겁게 하려 함
하나님의 두려움과 거룩함을 인지하지 못함(록 음악, 경배와 찬양, 신비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QT)
성경 말씀 강해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16-31)

문제를 지적한 뒤 해결책을 준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16-17).

함께 변론하자(18).

reason, 법정에서 따져 보자.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주시고자 한다(18). 고후7:1

용서의 조건(19-20)

순종이나, 거부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28)

결론

나라가 망하기 전의 징조가 성경에 있다. 사법부, 입법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정부 기관들이 썩어서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현시대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태이다. 4-6절

아직도 희망이 있다: 나는 이번 사태가 적어도 당분간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국민들 특히 20-30이 계몽되고 있다. 반공 교육, 공무원 중북 공산주의 반대 서약 등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 나라는 기독교로 세워진 국가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화평이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한다.